



IMF,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책 요구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IMF는 ‘유로지역 정책 관련 IMF 과제’보고서에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유럽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계경기 회복세가 좌초될 수도 있다고 주장함.

- 유럽 주변부 국가는 현재 높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, 성장 잠재력 저하, 은행시스템 취약 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.
- IMF는 주변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 신속한 정책입안이 필요한 상황이며, 나아가 정책입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공조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함.
- 공조체계 형성에 실패하여 각국이 각기 다른 정책을 추진할 경우 주변부 국가의 재정위기가 자칫 유럽의 핵심 국가로 전이될 수 있고, 이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예상함.
- 세계경제가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한 번 요동치게 되면 현재와 같은 회복기조는 보장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함.

■ IMF는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주변부 국가의 자발적인 경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 삭감, 유럽 각국의 응집력 있고 단합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함.

- IMF는 주변부 국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,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개방 확대,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함.
- 다른 유럽 국가들이 주변부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유지를 신속하게 합의하는 동시에 유럽재정안정화기구(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)의 기능을 확대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함.
- 주변부 국가의 부채 구조조정을 둘러싼 비생산적인 논쟁을 조기에 중단하고, 유로체제안정을 위해 각국이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인식을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함.

■ IMF는 또한 유럽의 경제회복 기초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함.

● IMF는 기준금리의 정상화가 주변부 국가의 금리부담과 유럽의 경제회복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완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함.

- 완만한 기준금리 상승이 물가상승 기대심리 안정화에 효과적이며 생산 갭을 축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함.

●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유동성 지원을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이후까지 유지할 것을 주장함.

-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들이 유동성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고 봄.

■ 한편, IMF는 재정위기 전염 가능성이 높은 스페인에 대해서도 조기에 부채위기를 해결하고 경제를 회복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함.

● IMF는 정부지출 삭감, 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, 저축은행의 자본확충과 투명성 개선, 임금 교섭규칙 변경 등 재정, 금융,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스페인의 노력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함.

● 스페인은 그리스 위기의 심화로 국채발행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고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자금확보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, 중기적으로는 21%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, 주택경기 부진, 은행 손실 해소 지연, 가계 및 기업의 부채조정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연될 위험이 커진 것으로 분석됨.

● IMF는 스페인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10년 9.2%에서 2011년 6%로 낮추는 동시에 은행의 자본확충과 투명성 제고,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전격적인 은행시스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며, 노동시장에서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함.

(IMF, Wall Street Journal, Bloomberg 6/22)